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희망찬 전북 교육’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기총회·신년인사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2025년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 및 임원진, 14개 시군 학부모회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해 새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전북학부모회협의회회의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운영 계획을 협의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학부모 네트워크의 성장을 꼽았다.

2025년도 운영 계획으로는 △학부모회의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협력 확대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시행규정 개정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이 있다.

정유미 회장은 “올해도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돼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학부모회, 14개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및 전북학부모회협의회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부모회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전북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4일 2025년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회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의 IB 프로그램 도입 과정과 운영 전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했다.

전북 IB프로그램, 강원서 벤치마킹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북자치도교육청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의 IB 프로그램 도입 과정과 운영 전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했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3층 종합상황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와 IB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주무관 등이 전북의 IB 프로그램 도입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질의를 통해 IB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과 시기 △도입 과정과 절차 △운영 △에듀테크 환경 구축 △예산

편성 △학교 공모 및 내실 있는 지원 등에 대한 과정과 사례를 공유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위원회 의원이 열정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IB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과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IB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은 수업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며, IB 본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인증 단계(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를 거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 | 학교배정 결과는 17일 발표

합격자 등록기간은 20~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2층 강당에서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 추첨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이해은 전주중등교장협의회회장, 언론인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군산, 익산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전주 23개교 5,488명, 군산 8개교 1,828명, 익산 8개교 1,617명 등 39개교 8,933명이다.

학교 배정은 체육특기자, 교육지원대상자, 지체장애인 및 회귀병 질환자, 다자녀가정 자녀 등을 선배정하고, 공개 추첨으로 뽑힌 배정기초 값에 의해 일반배정 대상자를 1차로 지원자부터 정원수(학교별 선배정자 제외)만큼 컴퓨터로 추첨해 이뤄졌다.

한편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누리집 및 전북고입전환포털 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입학등록은 20~22일 3일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2층 강당에서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을 실시했다. 이날 공개 추첨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이해은 전주중등교장협의회회장, 언론인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했다.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 선정

우석대 김주영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여받아

우석대학교 역량개발인증센터장인 김주영(약학) 교수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과 관리 업무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융합전공개발과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운



용, 마이크로디그리 관리 체계 설계 및 운영에 일조했다.

특히 우석대학교가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한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2023)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김주영 교수는 “교내 혁신적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혁신 추진 공로 인정

원광대 최준호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여받아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농식품융합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최준호 교수가 2024년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혁신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최준호 교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에서 원광대의 농생명·바이오사업단 중심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선정 후에는 단장을 맡아



지역혁신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학 협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준호 교수는 “2024학년도 2년차 RIS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25학년도에도 기존에 수행한 RIS사업과 LINC사업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준호 교수는 서울대 농화학 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대약품(주) 중앙연구소, MIT 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수석연구원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원광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17일 국내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오는 17일 대학본관 222호에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통장(Commons)의 역사: 공유·공존·공생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내 학술대회는 HK+연구단 단장인 변주승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화(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1·2부에 걸쳐 총 5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고전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간의 삶 속에서 공유되던 공통장의 역사부터 해체되고 분열된 역사까지 다각도에서 조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공동체가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참여 아동 9655명

504명 불참, 2명 소재 확인 안돼... 경찰에 수사의뢰 요청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실시 결과, 아동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은 전년도 조기입학, 외국국적 아동 등을 포함해 총 1만1599명이다. 이는 전년(1만

1,523명) 대비 1,364명(11.8%) 감소한 것이다.

취학대상 아동 중 9,655명(95.0%)이 예비소집에 참여했고, 504명(5.0%)이 불참했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504명 중 취학 유예·면제, 부모와 해외출국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소

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익산 2명으로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유선 연락·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취학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축구부

인제대 꺾고 16강 진출

전주기전대학 축구부가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21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전년대 중 유일하게 16강에 올랐다.

2,5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3월 개최 예정인 덴소컵 한·일 1~2학년 챔피언십 출전팀 선발전을 겸하고 있다.

14일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신입생들의 땀방울로 인제대를 3:0으로 격파하며 16강에 올랐다.

신입생 최영현은 “대학 축구의 맛을 보고 있으며, 우리 팀이 우승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기전대학 축구부.

(사진=전주기전대학 제공)

우경복 감독은 “어떤 팀을 만나든 학생선수들이 갖출 수 있는 태도와 정신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은 우승후보 동명대와 8강행 티켓을 놓고 한 판 대결을 벌인다. /장은성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은 지난 13~17일 특수교육대상학생 39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가족들의 빈틈없는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방한채, 캔들, 그림북, 점시만들기의 공예활동 △기초 코딩교육, 코딩 로봇의 원인 알기 및 코딩 로봇 작동 교육 △샌드위치, 감밥, 딸기 케이크 등 생활요리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미래교육실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첨단기술을 연계한 네오존과 네오스파이더 등 로봇 코딩을 직접 작동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한 학생의 학부모는 “방학 동안 아이가 집에서 지루해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배우는 시간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